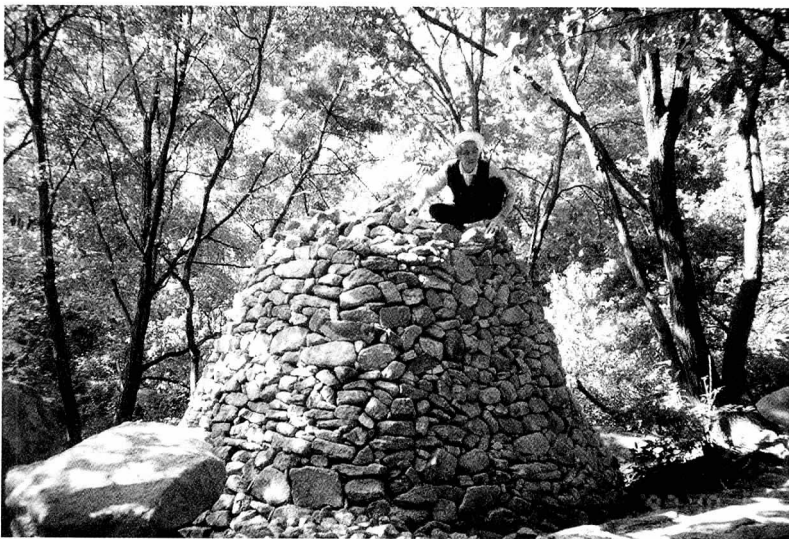


zoom up

서낭당 쌓으며 ‘민속보존’ 소망

북한산일대서 12개 다시 세운 鄭鍾健웅



▲ 정릉에서 계곡에 흩어져 있는 돌을 모아 서낭당을 다시 쌓고 있는 鄭鍾健웅

원로 법학자 이항녕(李恒寧·83·전 홍익대총장) 박사는 지난 해 여름, 집 근처 북한산을 오르던 중 돌이 어지러이 무너져 내려 보기 흉했던 서낭당 하나가 말끔하게 다

시 쌓인 것을 발견했다. 연이어 북한산의 서낭당 몇개가 깨끗이 정리됐다.

「고대부터 우리민족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쌓은 제단인 서

낭당을 누가 이리 정리했을까. 솜씨 는 보통이 아닌걸…」 이박사는 주인공을 찾으려 했지만 『한 노인이 다시 쌓았다』는 얘기만 전해 들었을 뿐 만날 수 없었다.

어느날 정릉을 산책하던 그는 한 노인이 서낭당을 다시 쌓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미아리에서 40년째 사는 정종건(鄭鐘健·80)옹. 황해도 신계군 출신으로 1·4후퇴 때 월남한 뒤 자영업을 해왔다. 그런 정옹이 북한산 주변에 허물어진 서낭당을 쌓기 시작한 것은 지난 해 6월부터. 수십년 다닌 등산로 주변의 서낭당 돌들이 마구 흩어져 있는 게 보기 싫었다. 그동안 쌓은 서낭당이 지금까지 12개. 높이 3~5m되는 서낭당이지만 돌을 쌓을 때면 몸이 그렇게 가벼울 수 없었다. 눈이나 비가 심하게 오는 날을 빼곤 아침 일찍 망치 등이 든 연장가방을 메고 현장을 찾아 해질 때까지 일한다.

『서낭당에 담긴 우리 민간신앙에 대해 학술적으로 깊이 알아서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문화재와 전통민속이 잘 보존됐으면 하는 생각 뿐

입니다.』

흙이나 돌을 원추형으로 쌓아올린 뒤 꼭대기에 나무를 꽂은 몽골의 오보나 중국의 성황(城隍)신앙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서낭당은 돌탑이나 돌무더기, 솟대, 당집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다.

이종철(李鐘哲) 전주박물관장은 『일제 강점기까지만도 1만2천여개에 달했던 전국의 서낭당은 60년대 말 그 절반인 6천개로 감소했고, 새마을운동 때 미신타파 등을 이유로 부수는 바람에 다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서낭당을 다시 쌓는 일은 사라져가는 우리민속을 복원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정선생처럼 묵묵히 문화재를 아끼는 분들 덕에 우리 문화유산이 보존되는 겁니다. 고마울 뿐이지요.』

그후 정옹을 다시 찾은 이박사는 서낭당을 선왕당(仙王堂)에서 유래된 말이고, 단군이 쌓았다는 강화도 마니산의 참성단(사적 136호)도 서낭당의 하나라며 정옹과 정담을 나누었다. ❧

<조선일보>